

'정봉이' 안재홍 전주영화제 감독으로 참여

직접 시나리오 쓰고 메가폰 잡은 단편 '검은돼지' 초청받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정봉이'로 사랑받은 안재홍(30)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지 않는다는 영화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영화 쪽 구구왕(2014)에서도 마찬가지로, 축구를 좋아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복학생을 연기한 그는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좋아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썼다.

개성시대라지만 배우를 하기에는 평범한 외모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 그는 내일을 심히 걱정하지 않고 그저 마음의 소리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와 지금에 이르렀다.

영화 '위대한 소원' (감독 남대중) 개봉을 앞두고 만난 안재홍은 TV나 영화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달변가도 수다쟁이도 아니었다. 다소 어눌하면서 담백하게 이어지는 말속에 위트가 묻어났다.

학창시절 그는 "적당히 까부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크게 사고처지도 않았고 압전히 책상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는, 공부만 했던 잘하지는 않았다."

어릴 적부터 좋아한 건 영화보이다. 비디오 대여점에서 최신작을 다 빌려봤다. 반납하기 전에 되감아 다시 한 번 보는 게 예사였다.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영화학과를 지원했지만 그때만 해도 연기를 할지 몰랐다. "입학해서 친구들과 단편을 만들고 무대에 연극을 올리면서 즐겁다는 감정을 처음 느꼈다. 그는 2005년 건국대

영화학과 연기전공으로 입학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상경하기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살았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그곳에서 꿈 하나를 품었다. '내가 출연한 영화를 본 뒤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었다. 소박한 듯 쉽지 않은 그 꿈은 2012년에 이미 이뤄졌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후에는 막연히 상상해온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바로 대중이 연기자 안재홍을 알아봐주는 것이다. 연기자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었을 꿈이다. "응답 이후 가장 큰 변화다. 마트에서 아줌마들이 특히 반가워해준다. 기분이 좋다. 불편한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오랫동안 막연히 상상하던 일이 이뤄져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위대한 소원'은 드라마로 뜨기 전에 찍었다. '응답' 이후 공개되는 첫 주연영화다. 안재홍이 연기한 감덕은 불치병에 걸려 죽게 생긴 친구 고환(류덕환)을 위해 별의별 짓을 다한다. 그 중 하나가 지위해 주는 장면이다.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물으니 별절게 된 눈을 표현하기 위해 착용한 특수렌즈를 언급했다. "공포영화 찍을 때 사용하는 특수렌즈다. 렌즈가 커서 집어넣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귀신이나 좀비 역할 하는 배우들에게 경의를!"

안재홍은 28일 개막하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 감독 자격으로 참석한다. 단편 '검은돼지'가 코리아시네마스케이프 섹션에 초청받아서다.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메가폰도 잡았다.



영화 '위대한 소원' (감독 남대중) 개봉을 앞두고 만난 안재홍은 TV나 영화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학교를 다니면서 단편을 찍었던 기억이 너무 좋아 졸업 후에도 친구들과 함께 2편 더 찍었다. 그렇다고 연출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단편은 마음 맞는 친구 4명이 차 한 대를 빌려서 그곳에 딱 들어가

는 만큼만 장비를 빌려 찍었다. "전주영화제에 초청돼 친구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오늘을 즐겁게 사는 연기자 그 이름 안재홍이다. /정해은기자

도, 체육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펼쳐

전북도가 제54회 체육주간을 맞아 24일부터 30일까지 다양한 체육행사를 펼친다. 체육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실시되며, 각 지자체나 직장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상황에 맞는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는 "4월 체육주간은 운동하기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날입니다"라는 포어를 내세워 활발한 홍보활동과 함께 다양한 스포츠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2016 남원코아아파트 국제플라타대회를 비롯하여 '전북직장 및 클럽대항테니스대회', '도지사기 전국합기도대회', '도지사기 패러글라이딩대회', '전국남녀 동호인 배구대회' 등 도내 각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해 도민에게 불거리 제공과 동시에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53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는 많은 대회 중에서도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현장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주간이 계기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꾸준하게 스포츠 활동을 이어 나가 건강한 취미활동을 즐기고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민근 기자

장수군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장수군체육회는 22일 오전 11시 장수한누리전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장수군체육회장에 최용득 장수군수를 추대했다. 이날 읍·면 체육회장, 종목별 대의원 및 여성체육위원장 등 1백여명은 지난 4월 12일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의 성과 보고를 받은 뒤 장수군체육회 정관(안) 승인의 건과 종목단체 및 읍·면 체육단체 규정(안) 승인의 건, 임원(부회장 이사, 감사) 선출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최용득 장수군 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장수군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하나가 돼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지속적인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체육단체 이원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체육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체육단체를 통합, 체육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수=고관호기자

27년차 선배가수 책임감 이승환 새 싱글 '10억 광년의 신호' 발표

"신념을 갖고 음악을 하면 누군가는 박수를 쳐 준다"

가수 이승환(50)이 21일 새 싱글 '10억 광년의 신호'를 발표했다. 내년 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11번째 정규앨범 '폴 투 플라이-후(Fall To Fly-後)'에 실릴 수록곡이다. '10억 광년의 신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몇 곡의 싱글을 선 공개할 예정이다. '폴 투 플라이-후'에 앞서 2014년 발매한 10번째 정규앨범 '폴 투 플라이-선(Fall To Fly-前)'은 이승환의 말을 빌리자면 '망한 앨범'이다. 그럽에도 전편을 능가하는 비용을 투입해 후편을 만들고 있다. 애초에 전편보다 더 대중적이지 않을 것을 예고한 만큼 사실 경제적인 활동은 아니다. 그래도 꾸준히



가수 이승환(50)이 21일 새 싱글 '10억 광년의 신호'를 발표했다.

정규앨범을 준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27년차 선배가수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다.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어렵

게 음악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누군가는 권이 넘었어도 의욕을 불태우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신념을 갖고 음악을 하면

누군가는 박수를 쳐 준다는 믿음으로 계속 무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켜켜이 쌓은 자신의 삶을 앨범에 녹여내는 게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장의 CD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풀어내고 싶었다. '10억 광년의 신호'를 디지털 싱글로 공개한 것은 앨범 한 장을 다 듣지 않은 세대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다. 앨범의 한 곡, 한 곡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10억 광년의 신호'는 멀어진 상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그 그리움이 상대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사람의 마음을 빛에, 마음의 거리를 광년에 비유해 완성한 노랫말은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정해은기자

전라북도 꿈나무 축구대회' 고창군에서 열려

도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체력증진과 성취감부여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꿈나무 축구대회'가 고창에서 개최됐다. 23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제14회 전라북도 꿈나무 축구대회'는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아동복지협의회가 주관해 매년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도내 5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고창군에서 열렸다.

이날 개최식에는 박우정 고창군수를 비롯한 유성영 국회의원, 박철용 복지여성보건의국장, 이상호 고창군의회의장, 이호근?장명식 도의원,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회식에 이어서는 축구 예선전 및 결승전, 아동들과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첨이 진행됐다.

축구대회를 통해 시설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의 친목과 우애를 돈독히하며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지리가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